

# 전북대생들, 지역 기업 수출 증대에 한몫 기여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 실제 수출 계약

전북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이하 GTEP 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열린 각종 해외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해 도내 중소기업 수출길을 여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 사업단 박소영(무역학과 3년)·백진수(무역학과 3년) 학생은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 엔투인과 함께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17 비욤드 뷰티 아세안 방콕전시회'에 참가해 45만 달러 수출 상담과 10만8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전시회에 참가한 김은채(영어영문학과 4년)·조은상(무역학과 3년) 학생도 전주시 업체인 (주)다인스의 손톱 미용제품 60만 달러어치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시험 주문을 통해 24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업단 학생들은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2017 뉴욕 K-Food Fair'에도 참여해 전북에 소재한 (주)디자인농부가 생산한 건강식 곡물가루 제품 10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도 올렸다.

또한 유정윤 학생(프랑스어프리카학과 4년)은 사업단 협력업체인 엔트라주얼리와 함께 '2017 인터내셔널 주얼리 런던 전시회'에 참가해 영국 및 중동 바이어들과 30만 달



밥 굶는 아이없는 세상을 위해 써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사장 서행근)이 25일 오전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에 성금으로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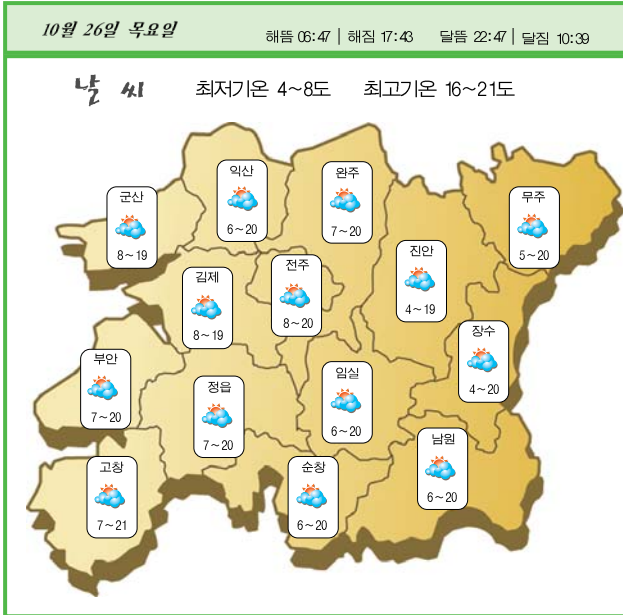
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민호 사업단장(무역학과 교수)은 "최근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

역의 수출상담과 계약 실적을 올린 것은 협력업체들과 해외전시회에서 상담을 지원한 GTEP 사업단 요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다수

유려 바이어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향후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7 서비스품질 지수 평가에서 서울, 지방 대학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대학 중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전국 1위에 이어 3번째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해 공신력을 높였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81.9점을 받아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국내 종합대학(수도권) 1위 대학의 점수인 79.7점보다 높아 전국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했다.

전북대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대는 CK사업, IINC사업, ORE 사업 등 정부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자금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 비율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천8백35만원으로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총장은 "학생들을 모험생으로 키우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보다 다양한 것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재양성 방향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앞으로 학생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산골학교에 문화공간 조성

### 무주고 교정 명상 숲...오늘 문화 공연

무주고등학교 교장 김성철 교내에 명상 숲이 조성되었다.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잡초와 풀방아로 흥망했던 본관 건물 동쪽 광장에 학생들의 사색과 교육활동 공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광터를 제공하고 싶었던 교정은 무주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명상 숲을 최근 완공했다.

명상 숲에는 작은 음악화나 사냥송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무대와 조형시 설치되었고 봄부터 가을까지 흰색, 연한 홍색, 황자색으로 파는 데이지 수선화, 금강화, 패랭이 등 여러

종류의 꽃과 능소화, 공작란종, 보리수 등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져 4개월 내내 아름답게 교정이 물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숲을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과 사색, 음악 공연, 시 낭송, 연극 무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주고에서는 명상 숲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8일 저녁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낭송, 독창, 중창, 악기 연주와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갑작 축하 공연 등을 선보이며 갖아가는 가을 저녁, 아름다운 선율에 모두가 행복해 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된다.

/무주=전선진 기자

학부모들은 공부에 지친 자녀들이 휴식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고 학생들 역시 정일 같은 이곳에서 사색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무주고 김성철 교장은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밝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정서적 안정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무주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서일초 등 24개교 '어린이교통안전구역' 설치

전주서일초교 등 24개 학교가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25일 도교육청은 전주서일초교 등 24개 학교가 학교주변 횡단보도 대기지역에 안전구역 설치를 통해 통학로 안전 강화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횡단보도 대기구역에 노란 발자국을 표시하거나 노란펜티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어린이교통안전구역 설치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주서일초, 전주중산초 등 10개 학교다.

군산은 2개, 익산 3개, 정읍 3개 학교 등이다.

노란발자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선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그림이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81%가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28·29일 전북 수확체험 한마당 개최

제9회 전북 수확체험 한마당이 주말인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KBS 전주방송총국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수확체험센터가 주최 및 주관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KBS전주방송총국 전북초중수학교과연구회, 전북중등수학교육연구회가 후원한다.

수확체험 한마당은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확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을 위해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수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교육의 확산과 동시에 수학교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올해 한마당에서는 작년보다 수확 체험부스가 더 늘어나고 다양해졌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확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수확클리닉도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제21회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2017년 10월 26일 ~ 10월 30일 (5일간)

개회식: 10. 28(토)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주차장)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69-1

정읍축산물 판매 / 농·특산물 판매행사 | 주최/주관 | 정읍시 | 후원 |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시지회 | 문의 | 정읍시청 축산과 539-6351~3